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 육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유생성이 초등학교 학생들의
영어 연어능력에 미치는 영향



2010년 2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영어전공

이 승 현

교 육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유생성이 초등학교 학생들의
영어 연어능력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김 은 일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2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영어전공

이 승 현

이승현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9년 12월 09일



주 심 영문학박사 윤 희 수 (인)

위 원 영문학박사 전 춘 배 (인)

위 원 언어학박사 김 은 일 (인)

목 차

I. 서론	1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1.2 연구의 과제	3
1.3 연구의 제한점	4
II. 이론적 배경	5
2.1 연어	5
2.1.1 연어의 정의	5
2.1.2 연어의 중요성	6
2.1.3 연어에 관한 선행연구	7
2.2 유생성	8
2.2.1 유생성이란?	8
2.2.2 유생성부호화의 원리	9
III. 연구 방법	13
3.1 실험대상	13
3.2 실험설계	13
3.2.1 실험대상 어휘선정	13
3.2.2 실험문항 설계	18
3.2.3 실험문항 구성	19
IV. 결과 분석 및 논의	21

4.1 전체 결과	21
4.1.1 유생성 동일부호화 문항과 상이부호화 문항 집단 간 비교	21
4.1.2 유생성 상이부호화 중 무표문항과 유표문항 집단 간 비교	24
4.2 형용사 관련 문항	25
4.2.1 유생성 동일부호화 문항	25
4.2.2 유생성 상이부호화 문항	27
4.3 동사 관련 문항	32
4.3.1 유생성 동일부호화 문항	32
4.3.2 유생성 상이부호화 문항	35
V. 결론	40
참고문헌	42
부록 - 실험용문제지	46

표 목 차

<표 1> 어휘별 문항 구성	20
<표 2> 동일부호화와 상이부호화 문항의 기술통계	22
<표 3> 유생성 동일부호화와 상이부호화 문항집단 간 t-검정과 상관관계	23
<표 4> 무표문항과 유표문항 집단 간 t-검정과 상관관계	24
<표 5> 유생성 동일부호화 문항 중 형용사 문항의 정답률 순위	25
<표 6> 유생성 상이부호화 문항 중 형용사 문항의 정답률 순위	27
<표 7> 유생성 동일부호화 문항 중 동사 문항의 정답률 순위	33
<표 8> 유생성 상이부호화 문항 중 동사 문항의 정답률 순위	36

그 림 목 차

<그림 1> 의미영역의 통사적 부호화 도형	9
<그림 2> ‘rice’ 의 예	10
<그림 3> ‘악어’ 의 예	11
<그림 4> 유생성 부호화의 예	12

A STUDY ON ANIMACY AND ELEMENTARY 6 GRADE STUDENTS'
COLLOCATION COMPETENCE

Lee, Seunghyu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objective of the current study was to investigate how much six-grade Korean elementary school students are aware of collocation of English words that have animacy. We conducted an exam of words that elementary students learn from school. The words included animated same-encode word and animated different-encode to evaluate how the degree of difficulty differ between these two word groups. Also within the animated different-encode words, marked and unmarked words were included to test if there was any differences in how students understand the words. The test results were analyzed in groups of animated same-encode group and animated different-encode group. The animated different-encode group was divided further into marked or unmarked group and mean score was compared between the groups. The results of evaluation of the six-grade elementary students' collocation ability of English are stated below.

Firstly, the mean difference between the animated same-encode group and the animated different-encode group was analyzed using t-test. The mean score of the animated same-encode group was higher than the animated different-encode group by 20.22 and the t-test of the differenc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p < .0001$). Therefore, Korean six-grade elementary students take the animated different-encode words harder than the animated same-encode words.

Secondly, the mean scores between the animated different-encode marked word group and the animated different-encode unmarked word group was

analyzed using t-test. The mean score of the unmarked word group was higher than the marked word group by 25.49 and the differenc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p < .0001$). However, the percentage of correct answers for words such as full, heavy and short did not differ whether they were used as marked or unmarked. For the rest of 12 words the percentage of correct answer was higher when the words were used for marked than unmarked. Therefore, we can conclude that six-grade students lack collocation ability when English words are expressed differently in Korean because of animacy.

The reason for this phenomenon is that Korean six-grade elementary students are not aware of the differences between Korean and English for animacy expression. Also, a word was taught with only one meaning so it results lacking to learn the other meanings of the word such as marked. Thus, it is necessary to educate differences in animacy expression so that collocation ability of students can be improved and to increase probability to study marked words. And studying vocabulary is different from studying grammar and one should study repetitively and continuously. Also, English textbook in the elementary school should list collocation words in each chapter and teaching aid materials for the teacher should be provided. Should teacher understand the necessity of teaching collocation, it will be very helpful to improve English communication ability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I.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우리나라 초등학교 영어 교육을 하는데 있어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배울 것인가 하는 것은 중요한 관심사이다. 영어의 네 기능, 즉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익히는데 어휘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하지만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어휘학습 지도는 부수적인 요소로 간주되어 왔다(김인석&강진, 2007). 그리고 우리나라의 영어 어휘 학습 지도는 주로 개별 단어에 대한 의미를 한국어와 일대일 등치(paired-translational equivalent)방식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이화자 1996). 그러나 이러한 단순 암기식의 단어 학습은 영어에 대한 거부감을 불러일으키고, 학습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이러한 학습 방법에서 벗어나 영어라는 언어가 한국어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학생들의 영어 표현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영어 학습자들이 모국어와 영어 간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영어 학습 시 혼돈을 일으키는 많은 부분 중의 하나가 바로 유생성(animacy)과 관련된 언어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간략히 말해 유생성이란, 생명을 가진 생물(animate)과 생명이 없는 무생물(inanimate)을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생명의 유무, 즉 유생성에 따라 언어표현이 다르게 부호화(encode)되는 현상은 많은 언어에서 찾아볼 수 있다(Cormrie, 1989; Croft, 1990). 생물과 무생물이라는 의미적인 차이점이 우리말 구조에서는 부호화되는 반면 영어

구조에서는 표현되지 않는다. 이러한 유생성 현상은 통사적(syntactic)계층 뿐만 아니라, 형태적(morphological), 어휘적(lexical)계층에서도 일관성 있게 발견된다(김은일 1998, 2000).

예를 들어, 영어를 처음 접하게 되는 일부 학생들은 대명사 'this'가 'This is a pencil.'에서처럼 사물을 지칭할 때뿐만 아니라 'This is my teacher.'에서처럼 사람을 지칭 할 때도 사용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의아하게 생각한다. 한국어에서는 '이것'이 사물을 지칭할 때 쓰이고, 사람을 지칭할 때는 '이 사람' 또는 '이 분' 등으로 다르게 표현되기 때문이다. 또 우리나라 학생들은 'My father is tall.'과 같이 'tall'이라는 형용사가 사람주어와 함께 쓰이는 것에는 익숙하나, 'What a tall building!'와 같이 'tall'이 무생물주어와 함께 쓰이는 문장을 보면 이상하다고 느낀다. 비슷한 예로, 학생들은 'turn'이라는 단어는 'I turn around.'에서처럼 일반적으로 '돌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만 배우고, 다른 주어와 함께 올 수 있는지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다양한 예시를 접할 기회가 없다. 하지만 'This road turns left.'에서처럼 무생물 주어가 'turn'과 함께 올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turn'이 '돌다'라는 의미가 아닌 '(도로 따위가)구부러지다'로 해석된다. 이러한 예들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어는 사람과 쓰이는지 무생물과 쓰이는지에 따라 표현이 달라진다. 그러나 영어에서는 많은 경우 유생성에 상관없이 같은 표현을 쓰는 경향이 있다.

위와 같이 언어마다 유생성 개념이 부호화 되는 방식은 다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런 유생성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유생성에 관한 연구로는 이윤경, 전지현과 김은일(2008)의 '유생성이 중학생들의 영어 언어능력에 미치는 영향', 김소영(2002)의 「한영 지시표현의 비교 분석(유생성 부호화를 중심으로)」, 허진이(2001)의 「영어와 한국어에서의 유생성 연구」, 김은일(2000)의 '유생성의 문법', 김은일(1998)의 「영어 구사력 향

상을 위한 한·영 구조에 나타난 유생성 차이에 관한 비교연구」 등이 있다. 하지만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유생성에 관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한국어와 영어 간의 유생성 차이를 얼마나 잘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1.2 연구의 과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유생성에서 차이를 보이는 한국어와 영어 형용사, 동사를 얼마나 잘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과제는 아래와 같다.

연구과제 1: 초등교육에서 배우는 유생성이 있는 동일부호화 어휘¹⁾와 상이부호화 어휘를 시험하는 문항 집단 간에 난이도 차이가 있는가?

연구과제 2: 연구과제 1에 포함된 유생성 상이부호화 어휘 중에 유표문항 집단과 무표문항 집단 간에 난이도 차이가 있는가?

1)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유생성 동일부호화 어휘, 유생성 상이부호화 어휘, 무표문항, 유표문항은 3절 중 3.2에서 자세하게 설명한다.

1.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아래와 같다.

한국어와 영어간의 유생성의 차이를 실험한 대상을 부산의 네 곳의 초등학교에 국한하였기 때문에 이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제한점이 있다.



Ⅱ. 이론적 배경

이론적 배경에서는 연어와 유생성에 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2.1 연어

이 절에서는 연어의 정의와 연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연어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2.1.1 연어의 정의

연어(collocation)란 개별적인 단어들이 다른 단어들과 결합하는 현상을 말하며, 그 유래는 라틴어의 ‘collocare’로 ‘com(together)’과 ‘locare(to place)’의 합성어이다. 따라서 동사인 ‘collocate’는 ‘to place together’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어원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연어는, 두 개 이상의 단어들이 결합된 것으로 특정 의미를 나타내는 어휘들의 결합이며, 개별적 어휘들이 뭉쳐져서 나타나는 것이다. Oxford Collocations Dictionary for Students of English(2002)에는 연어를 ‘the way words combine in a language to produce natural-sounding speech and writing.’으로 설명하고

있다.

Palmer(1933)는 연어를 ‘comings-together-of words’로 표현하였으며, ‘어휘 뭉치(chunks)’라고 최초로 표현하였다. 그 후, Firth(1951)는 “You shall know a word by the company it keeps”라고 영어 학습에서 단어 간 결합의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또 1957년에 “Collocations of a given word are statements of the habitual or customary places of that word”로 연어의 정의를 기술하였다. 연어에 대한 관한 다른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연어의 정의

- a. Collocation is a pair or group of word that are often used together (연어는 두개 이상의 단어가 함께 사용되는 것이다.). (McCarthy & O'Dell 2005: 6)
- b. Collocation is about words which occur together more often than might be expected if words were produced randomly(연어는 따로 사용되는 경우보다는,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더 많다.). (Lewis 2000: 127)
- c. Collocation is words with which it company associates(연어는 함께 사용되는 것이 연상되는 단어 집합이다.). (Nattinger 1988: 68)
- d. Collocation is actual words in habitual company(연어는 습관적으로 함께 사용되는 단어들이다.). (Palmer 1968: 182)

이처럼 연어의 정의는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단어 간 결합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함께 사용되는 단어들은 의미 구성에 서로 영향을 미친다.

2.1.2 연어의 중요성

Lewis(1993)가 'Lexical approach'라는 용어를 최초로 쓰면서 어휘의 의미는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둘 이상의 어휘의 결합 관계 속에서 파악된다고 하였다. Lewis(1997)는 어휘를 다항어(polyword), 연어(collocation), 관습화된 발화(institutionalized utterance)와 문장 틀 혹은 문두어(sentence frame or sentence head)의 네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는데 특히 연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연어 학습은 어휘 학습의 핵심적 부분이며(McCarthy & O'Dell, 2005),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하다(Bahns & Eldaw, 1993; Lewis, 1997)는 연구들이 있다.

2.1.3 연어에 관한 선행연구

연어 학습지도의 효과성과 관련한 국내의 연구를 살펴보면, 김성식(2004)은 초등학생 3, 4, 5, 6학년을 대상으로 실험 연구를 실시한 결과, 연어 단위로 어휘를 학습한 학급이 낱말 단위로 학습한 학급에 비해 어휘를 더 효과적으로 학습했다고 보고했다.

김미순(2007)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 연구를 실시한 결과, 연어 중심의 어휘 학습이 개별 단어 목록 중심의 어휘 학습보다도 학습자의 듣기 능력 향상에 더 효과가 있었다. 읽기 평가에서도 실험반의 향상도는 통제반의 향상도에 비해 매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읽기 능력에 있어서 연어를 중심으로 한 어휘학습이 전체 대상자에게는 약간의 향상을 가져다주었으나, 성적 상위자에게는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했다.

진현정·정동빈(2007)은 5~6세 유아영어학습자를 대상으로 실험 연구를 실시한 결과, 연어 지도는 하집단의 유창성 향상과 지속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상집단과 중집단의 높은 점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향상시켜주었으며 유창성 지속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한국어와 영어의 부호화 차이점에 따른 영어 연어 능력에 관한 연구는 이윤경 외(2009)의 ‘유생성이 중학생들의 영어 연어능력(collocational competence)에 미치는 연구’가 처음이었고, 초등학교의 유생성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2 유생성

이 절에서는 유생성의 개념과 유생성 부호화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2.2.1 유생성이란?

유생성(animacy)은 생명을 가진 생물과 생명이 없는 무생물을 통틀어 일컫는 용어이다. 유생성은 어느 언어에서나 발견되는 현상이지만 언어에 따라 각각 다르게 부호화되어 진다. 특히 한국어와 영어는 어원, 통사구조 및 문화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인지적인 측면이 요구되는 유생성 현상에도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다. 유생성은 생물과 무생물의 의미적 차이점이 우리말의 구조에서는 표현(부호화)되는 반면, 영어에서는 표현되지 않는다. 즉, 우리말에서는 유생성을 구분하지만, 영어에서는 유생성에 관계없이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유생성은 언어에 따라서 격(case), 수(number), 동사의 일치 및 어순 등과 같이 다양하게 나타나게 된다. 이

유생성은 문법의 일부분으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형태적, 어휘적, 통사적 단계에 이르기까지 한 언어의 문법 전반에 걸쳐서 보다 체계적으로 나타나는 전국적인 현상을 말한다(김은일 2000).

2.2.2 유생성부호화의 원리

언어는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된다.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나 메시지를 언어형태로 부호화한다. 이때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영역은 무한하며 그 의미영역을 담는 그릇이 되는 언어형태 또는 언어표현수단은 제한되어 있다(cf. Schlesinger 1995). 이러한 제한된 언어표현수단으로 무한한 의미영역을 나타내야 하므로 유사한 의미영역은 동일한 언어형태로 부호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의미영역이 언어형태로 부호화되는 방식은 언어마다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동일한 의미영역이 언어에 따라 다른 형태로 부호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림 1>의 의미영역의 통사적 부호화 도형을 살펴보자(cf. Givón 1984: 39).

<그림 1> 의미영역의 통사적 부호화 도형

	A	B	C	D	E		H
부호화 점('가'언어)	•	•	•	•	•		•
의미영역							
부호화 점('나'언어)	•			•	•	•	•
	A			D	E	F	G

위의 도형은 같은 의미영역이 '가', '나'언어에 각기 어떤 언어형태로 부호화되는 지를 나타낸다. A에서 D까지의 의미영역이 '가'언어에서는 A, B, C, D라는 네 언어형태로 부호화되나, '나'언어에서는 A, D라는 두 언어형태로만 부호화된다. 이와는 다르게 E에서 H까지의 의미영역에서는 '가'언어는 E, H라는 두 언어형태로 부호화되나, '나'언어에서는 E, F, G, H라는 네 언어형태로 부호화된다. 같은 의미영역이 언어에 따라 더 많은 언어형태로 부호화(overcode)되기도 하고 더 작은 언어형태로 부호화(undercode)되기도 한다. 따라서, 같은 의미영역을 더 많은 언어형태로 부호화하는 언어는 더 적은 언어형태로 부호화하는 언어에서는 구분되지 않는 의미영역 까지도 구분이 되게 한다.

부호화의 관점에서 보면 두 종류의 간섭이 있다. 첫째는 한국어가 영어보다 과대부호화 된 경우이다. 예를 들어, 아래의 <그림 2>의 예에서 보면 한국어는 '쌀'과 '밥'을 다른 어휘로 부호화되나, 영어는 'rice'라는 하나의 어휘로 부호화된다. 'rice'의 의미를 '쌀'이라고 배운 학습자들은 '밥'에 해당하는 영어단어를 찾으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학습자는 한국어가 '쌀'과 '밥'이라는 단어가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영어에서도 그럴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때문이다.

<그림 2> 'rice'의 예

영어	rice	
	•	
기능영역	요리전	요리후
	•	•
한국어	쌀	밥

둘째는 한국어가 영어에 비해 과소부호화 된 경우이다. 예를 들면, 아래의 <그림 3>과 같이, 한국어의 ‘악어’가 사는 곳에 따라 영어에서는 독립된 단어 ‘alligator(미국에 서식)’과 ‘crocodile(아프리카에 서식)’으로 부호화되어 있다. 악어를 ‘alligator’로 배운 학습자들은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악어’를 뜻하는 ‘crocodile’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한국어에는 ‘악어’가 사는 곳에 상관없이 하나의 단어 ‘악어’로 부호화하기 때문에, 영어도 그에 따라 다른 단어가 존재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림 3> ‘악어’의 예

영어	alligator	crocodile
	•	•
	미국에 서식	아프리카에 서식
	•	
한국어	악어	

위와 같은 간섭현상이 어휘층과 문법층 모두에서 발견된다. 한국어가 영

어에 비해 과대부호화 되는 경우는 유생성과 의도성을 가질 때이고, 반대로 과소부호화 되는 경우는 기동·유지, 태(voice), 시제·상이라는 의미영역 일 때이다(김은일, 2002).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가 유생성과 관련하여 과대부호화 되는 경우를 살펴보고자 한다<그림 4>. 예를 들면, ‘rice’의 경우와 유사하게 영어는 유생성에 관계없이 ‘old’라는 하나의 표현으로 부호화되나, 한국어에서는 생물·무생물에 해당하는 개념이 각기 다른 표현인 ‘늙은’과 ‘낡은’으로 부호화된다.



지금까지 유생성이라는 의미영역이 한국어와 영어에서 다르게 부호화되는 경우를 구체적인 예와 함께 살펴보았다. 다음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방법을 살펴보겠다.



Ⅲ. 연구 방법

연구 방법은 실험대상, 실험설계로 나누어서 제시하였다.

3.1 실험대상

본 연구에는 부산시 소재 A급지 초등학교와 B급지 초등학교, C급지 초등학교, D급지 초등학교 네 곳의 6학년 각 두 학급씩 참여하였다. A급지 초등학교에서 63명, B급지 초등학교에서 52명, C급지 초등학교에서 54명, D급지 초등학교에서 50명의 학생이 참여하여 총 219명이 참여하였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유생성의 유무에 따른 영어 연어 능력을 알아보고자 한 것이고, 학생들에게 시험 요령만 언급하고 유생성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3.2 실험설계

실험대상 어휘선정과 실험문항 설계, 실험문항 구성은 다음과 같다.

3.2.1 실험대상 어휘선정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와 영어 간에 다르게 부호화되는 유생성 현상을 학생들이 이해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통사적인 계층을 위주로 연구하였다. 형용사와 동사를 이용한 문제지를 통해 한국어와 영어 간의 유생성 부호화 차이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도를 알아보고, 한국어와 영어의 유생성의 차이가 우리나라 초등학교 학생들의 영어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 ‘유생성 동일부호화’ 어휘 또는 문항²⁾

영어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의 생명의 유무에 관계없이 똑같은 한국어 표현이 사용되는 어휘들을 ‘유생성 동일부호화’ 어휘라고 정의하였다. 예를 들면 ‘strong’은 ‘My teacher is strong.’에서 사람과 쓰여도 ‘강한’이라고 부호화 되고 ‘This medicine is strong.’에서 무생물주어와 쓰여도 똑같은 한국어로 부호화된다. 동사 ‘move’는 ‘We must move quickly.’에서 사람 주어인 경우, ‘움직이다’로 부호화되고, ‘The train began to move.’는 무생물 주어로 쓰여도 똑같은 한국어로 부호화된다. 이 경우, ‘strong, move’는 ‘유생성 동일부호화’ 어휘에 해당되며, 본 연구를 위한 문제지에서 위와 같은 문항을 ‘유생성 동일부호화’ 문항이라고 정하였다.

2)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동일부호화’/‘상이부호화’/‘무표문항’/‘유표문항’은 ‘이윤경 외(2009)’ 논문을 참고하였다.

- ‘유생성 상이부호화’ 어휘 또는 문항

영어에서는 주어, 목적어 등의 생명 유무에 관계없이 같은 표현을 쓰지만 한국어에서는 유생성에 따라 다른 표현으로 쓰이는 어휘들을 본 연구에서는 ‘유생성 상이부호화’ 어휘라고 정하였다. 예를 들면 ‘I drink water everyday.’에서 ‘drink’는 사람주어와 사용되어 한국어로 ‘마시다’로 부호화된다. 그러나 ‘Plants drink up water.’와 같이 ‘drink’가 무생물주어와 함께 사용되면 ‘흡수하다’라는 한국어로 부호화된다. 이 경우 ‘drink’가 ‘유생성 상이부호화’ 어휘에 해당되며, 본 연구를 위한 문제지에서 이를 ‘유생성 상이부호화’ 문항 이라고 정하였다.

- ‘무표(unmarked)문항’

무표문항은 ‘유생성 상이부호화’ 문항들 중에서 한 쌍(pair)을 이루는 어휘 문항들 중 어휘의 기본, 대표의미로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배우는 의미를 묻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He is very old.’와 ‘My car is old.’와 같이 ‘old’에 대해 쌍을 이루는 두 문항 중 ‘무표문항’은 사람 주어와 같이 쓰인 ‘old’을 묻는 문항이다. 학생들은 어휘 학습 시 ‘old’의 대표의미로 ‘늙은’이라고 기본적으로 학습하기 때문이다.

- ‘유표(marked)문항’

유표문항은 위의 ‘무표문항’에 반대되는 용어이다. 즉, ‘유생성 상이부호화’ 문항들 중 한 쌍을 이루는 어휘에 대한 문항들 중 그 어휘의 대표의미가 아닌, 생명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한국어 표현을 아는 지를 묻는 문항이다. 예를 들면 ‘wait’와 관련된 두 문항 ‘I can wait for you.’와 ‘This work can wait until tomorrow.’에서 무생물인 ‘This work’와 사용되어 ‘미루다’

라고 표현될 때 적절한 연결 어휘로 ‘wait’이라는 어휘를 선택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 ‘유표문항’이다. 이러한 의미는 학생들이 ‘wait’의 의미학습 시에 기본적인 의미로는 학습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이 유생성에 따라 영어에서는 같은 표현이지만 한국어에서는 표현이 달라지는 어휘들에 대해 유생성 동일부호화 문항과 유생성 상이부호화 문항의 정답률을 비교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제 7차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제시된 어휘 중에서 형용사와 동사를 총 32개를 선정하였다. 유생성 동일 부호화 형용사 8개, 동사 9개, 그리고 유생성 상이부호화 형용사 8개, 동사 7개를 실험 문항으로 설계하였다.

가. 형용사

A. 유생성 동일 부호화 어휘³⁾

- 1) cold (추운)
- 2) big (큰)
- 3) beautiful (아름다운)
- 4) strong (강한)
- 5) good (좋은)
- 6) warm (따뜻한)
- 7) cute (귀여운)
- 8) late (늦은)

B. 유생성 상이 부호화 어휘⁴⁾

3) 본 논문에서 선정한 유생성 동일부호화 어휘는 괄호 안의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그 이유는 각 단어들이 괄호 안의 의미 이외에도 다양한 문맥에서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 1) full (배가 부른, 가득찬⁵⁾)
- 2) busy (바쁜, 붐비는)
- 3) free (자유로운, 무료/공짜인)
- 4) tall (키가 큰, <건물 등이>높은)
- 5) short (키가 작은, 짧은)
- 6) heavy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무거운)
- 7) old (나이가 든, 낡은/오래된)
- 8) thirsty (목마른, 메마른)

나. 동사

A. 유생성 동일 부호화 어휘

- 1) move (움직이다)
- 2) need (필요하다)
- 3) fly (날다)
- 4) kick (차다)
- 5) make (만들다)
- 6) help (도와주다)
- 7) use (사용하다)
- 8) come (오다)
- 9) die (죽다)

B. 유생성 상이 부호화 어휘

- 4) 괄호 안의 의미는 유생성 상이부호화 어휘가 사람과 쓰일 때와 무생물과 쓰일 때의 의미 순으로 기재하였다.
- 5) 괄호 안의 굵은 글씨체는 유생성 상이부호화 어휘가 기본적인 의미로 제시되지 않는 의미이며, 유표문항에 해당한다.

- 1) stand (서다, <건물 등이>위치하다)
- 2) run (달리다, 흐르다)
- 3) touch (만지다, 닿다)
- 4) take (데려가다, 가져가다)
- 5) wait (기다리다, 미루다)
- 6) like (좋아하다, 맞지 않다)
- 7) drink (마시다, 흡수하다)

3.2.2 실험문항 설계

실험문항의 설계는 다음과 같이 하였다.

가. 유생성 동일부호화 어휘들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언어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유생성 동일부호화 형용사 8개, 동사 9개에 대해 각각 사람과 쓰인 문항과 무생물(혹은 동, 식물)과 함께 쓰인 문항을 각각 한 쌍씩 만들어서 총 64문항 중 34문항을 설계하였다.

나. 유생성 상이부호화 형용사 8개, 동사 7개에 대해 각각 사람과 쓰인 문항과 무생물(혹은 동, 식물)과 함께 쓰인 문항을 각각 한 쌍씩 만들어서 총 64문항 중 30문항을 설계하였다. 이 중 15문항은 학생들이 각 어휘의 기본적인 의미로 어휘 학습 시 가장 우선적으로 학습하여 쉽게 접할 수 있는 의미를 포함한 문항(무표문항)들이고, 나머지 15문항은 영어에서는 생명의 유무에 관계없이 같은 말을 쓰지만 한국어에서는 유생성 차이에 따라 표현이 달라지는 어휘들로, 본 논문의 문제지의 핵심적인 문항(유표문항)들이 된다.

다. 문제지의 모든 문항들은 학생들의 추측에 의한 정답 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한 답이 연이어 나오지 않도록 하고, 순서를 임의로 배치하였다. (<표 1> 어휘별 문항 구성' 참조)

라. 한글 해석을 각 문항마다 제시하였는데, 이는 학생들이 한국어와 영어 간의 유생성 차이 현상을 극복하고 알맞은 단어를 선택할 수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또한 각 문항에서 모르는 단어 때문에 유생성에 따른 어휘를 찾지 못하는 문제를 피하고자 함이다.

마. 문제지의 예문은 주로 교과서에서 추출하고, 문장의 길이에서 오는 정답률 차이를 방지하기 위해 한 단어의 무표, 유표 문항의 문장 길이를 비슷하게 하여 제시하였다.

3.2.3 실험문항 구성

본 연구를 위한 문제지는 형용사와 동사 각 16개씩을 선정하여 유생성 동일부호화 어휘 32문항(형용사 8개 각 2문항 + 동사 8개 각 2문항)과 유생성 상이부호화 어휘 중 무표문항 17개(형용사 8개 각 1문항 + 동사 9개 각 1문항)와 유표문항 15개(형용사 8개 각 1문항 + 동사 7개 각 1문항)로 총 64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 1>은 문항 별로 어떻게 문제지가 구성되어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다.



<표 1> 어휘별 문항 구성

	유생성 동일부호화 어휘			유생성 상이부호화 어휘		
	단어	사람	무생물	단어	사람	무생물
형용사	cold	문항1	문항11	full	문항17	*6)문항27
	big	문항9	문항4	busy	문항23	*문항18
	beautiful	문항7	문항16	free	문항31	*문항20
	strong	문항3	문항13	tall	문항28	*문항24
	good	문항14	문항2	short	문항21	*문항26
	warm	문항5	문항10	heavy	*문항19	문항29
	cute	문항12	문항6	old	문항25	*문항32
	late	문항15	문항8	thirsty	문항30	*문항22
	합계(A)	8	8	합계	8	8
동사	move	문항33	문항41	run	문항59	*문항54
	need	문항44	문항37	touch	문항63	*문항50
	fly	문항46	문항34	take	*문항55	문항64
	jump	문항38	문항47	stand	문항51	*문항58
	make	문항42	문항35	wait	문항60	*문항52
	help	문항40	문항48	like	문항62	*문항56
	use	문항36	문항43	drink	문항53	*문항61
	come	문항45	문항39			
	die	문항49	문항57			
	합계(B)	9	9	합계	7	7
	총합계 (A+B)	34		무표(15)+유표 (15) 합계	30	

6) 별표(*)는 유표문항을 나타낸다.

IV. 결과 분석 및 논의

이 절에서는 시험지 채점 결과를 유생성 동일부호화 문항과 유생성 상이부호화 문항으로 나누어 각 문항 집단의 학생들의 평균을 비교·분석하였고, 상이부호화 문항 집단은 다시 유표문항과 무표문항으로 나누어 각 문항 집단의 학생들의 평균을 비교·분석하였다.

4.1 전체 결과

본 연구는 유생성 동일부호화 문항(34문항)과 유생성 상이부호화 문항(무표 15문항, 유표 15문항)에 있어, 전체 학생들의 성적 차이를 100점 만점으로 하여 환산한 값으로 유생성에 따른 부호화 차이가 초등학생들의 언어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4.1.1 유생성 동일부호화 문항과 상이부호화 문항 집단 간 비교

<표 2>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유생성 동일부호화 문항과 유생성 상이부호화 문항의 기술통계 결과를 나타내었다. 통계는 XLSTAT 2008년 버전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표 2> 동일부호화와 상이부호화 문항의 기술통계

	문항 개수	최저 점수	최고 점수	평균	표준 편차	평균점수 (100점 환산)	비대 칭도	학생 수
동일부호화 문항	34	0	34	28.75	7.67	84.56	-1.86	219
상이부호화 문항	30	0	28	18.73	7.24	62.43	-1.12	219
상이부호화 중 무표 문항	15	0	14	11.34	4.00	75.60	-1.56	219
상이부호화 중 유표 문항	15	0	14	7.38	3.60	49.20	-0.48	219
전체	64	2	63	48.05	14.82	75.03	-1.48	219

시험지는 전체 64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정답 문항에 1점, 틀린 답이나 답을 적지 않은 문항에 0점을 주었을 때, 초등학교 6학년 학생 219명의 평균은 64점 만점에 48.05점이었다. 평균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였을 때, 동일부호화 문항의 평균은 84.56점, 표준편차는 7.67, 비대칭도는 -1.86이었다. 이는 실험대상자들이 동일부호화 문항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이부호화 문항의 평균은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였을 때, 62.43점, 표준편차는 7.24, 비대칭도는 -1.12이었다. 유생성 상이부호화 문항의 평균과 최고값이 유생성 동일부호화 문항의 값보다 낮게 나타난 것을 보면 실험대상자들이 유생성 상이부호화 문항을 유생성 동일부호화 문항보다 어려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생성 상이부호화 문제 중 무표문항의 점수가 15점 만점에 평균 11.34점, 표준편차가 4.00이었으며, 점수의 분포는 최저 점수 0점에서 최고 14점이었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는 75.60점이었다. 또한, 유표문항의 점수는 15점 만점에 평균 7.38점이었으며, 표준편차는 3.60이었고, 점수의 분포는 최저 0점에서 최고 14점 이

었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는 49.20점이었다. 무표문항의 비대칭도는 -1.56이고, 유표문항의 비대칭도는 -0.48이었다. 이는 실험 대상자에게 유표문항이 무표문항보다 난이도가 더 높았음을 보여준다. 이 결과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윤경 외(2009)의 연구와 유사하였다.

실험 대상자들의 유생성 동일부호화 문항군과 유생성 상이부호화 문항군 간에 평균 성적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정(paired t-test analysis)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표 3>.

<표 3> 유생성 동일부호화와 상이부호화 문항집단 간 t-검정과 상관관계

	t검정					상관관계	
	Paired difference		t 값	자유도	Sig.	상관관계	Sig.
	평균	표준편차					
유생성 동일부호화 - 상이부호화	20.22	11.26	26.57	218	<.0001	0.89	<.0001
유생성 형용사 동일부호화 - 상이부호화	16.70	17.91	13.79	218	<.0001	0.78	<.0001
유생성 동사 동일부호화 - 상이부호화	25.49	14.60	25.84	218	<.0001	0.84	<.0001

유생성 동일부호화는 34문항이었고, 상이부호화는 30문항으로 차이가 있어서 각 평균을 최고 점수가 100이 되도록 하여 t-검정에 사용하였다. 유생성 동일부호화 문항의 점수가 상이부호화 문항의 점수보다 평균 20.22가 높았고, t-검정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001$). 두 문항군 간의 평균값의 차이를 보면 초등학생들이 유생성 상이부호화 문항을 동일부호화 문항에 비해 어렵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유생성 동일부호화 전

체 문항과 유생성 상이부호화 전체 문항 사이의 상관계수는 0.89로 학생들의 유생성 동일부호화 점수와 유생성 상이부호화 점수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뜻한다. 다시 말하면, 유생성 동일부호화 점수가 높은 학생의 경우, 유생성 상이부호화 점수도 높았다.

4.1.2 유생성 상이부호화 중 무표문항과 유표문항 집단 간 비교

유생성 상이부호화 중 무표문항과 유표문항 집단 간의 점수 차이를 t-검정으로 분석하였다 <표 4>.

<표 4> 무표문항과 유표문항 집단 간 t검정과 상관관계

	t검정					상관관계	
	Paired difference		t 값	자유도	Sig.	상관관계	Sig.
	평균	표준편차					
유생성 상이부호화문항 중 무표문항-유표문항	26.27	15.64	25.06	218	<.0001	0.82	<.0001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표 3>에 사용된 것처럼 각 문항 집단의 평균을 최고 점수가 100이 되도록 하여 t-검정에 사용하였다. 유생성 상이부호화 무표문항의 점수가 유표문항의 점수보다 평균 26.27가 높았고, t-검정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001$). 무표문항과 유표문항간의 상관관계는 0.82로 두 문항의 점수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뜻한다. 초등학생들이 비록 유표 문항보다 무표 문항을 어려워했지만, 무표 문항의 점수가 높은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유표문항의 점수가 높았고, 비슷하게 무표 문항의 점수가 낮은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유표문항의 점수도 낮았다.

4.2 형용사 관련 문항

형용사 관련 문항 중 유생성 동일부호화 문항과 상이부호화 문항의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려고 한다.

4.2.1 유생성 동일부호화 문항

형용사 문항 중 주어의 유생성에 따라 한국어와 영어 간에 동일하게 부호화되는 문항들에 관한 결과를 고찰하고자 한다. 유생성 동일부호화 문항 중 형용사 문항의 정답률 순위를 <표 5>에 나타내었다.

<표 5> 유생성 동일부호화 문항 중 형용사 문항의 정답률 순위

No	정답	사람	정답률(%)	No	정답	무생물	정답률(%)
1	cold	문항1	95.90%	1	big	문항4	97.30%
2	beautiful	문항7	95.00%	2	good	문항2	95.90%
3	good	문항14	91.80%	3	cold	문항11	94.52%
4	cute	문항12	90.90%	4	beautiful	문항16	94.52%
5	big	문항9	87.70%	5	cute	문항6	90.40%
6	late	문항15	85.39%	6	late	문항8	84.5%
7	strong	문항3	84.00%	7	warm	문항10	83.10%
8	warm	문항5	84.00%	8	strong	문항13	75.34%

<표 5>에서 문항간의 평균 정답률은 ‘cold, beautiful, cute, late, warm’

은 큰 차이가 없었다. 이는 주어 유생성이 초등학생들이 정답을 맞추는데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유생성 차이에 의해 사람 주어와 관련된 문항과 무생물주어와 관련된 문항에서 정답률의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문항은 ‘big’으로 정답률의 차이는 9.60%였고, 그 다음으로는 ‘strong’으로 8.66%였다. 또한 무생물 주어와 관련된 <문항13>의 ‘strong’은 정답률이 75.3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big’과 ‘strong’ 문항을 자세히 살펴보겠다.

1) big

- 사람주어 : 문항 9) 그는 (덩치가) 큰 사람이다.

He is a **big** man. (정답률 : 87.70%)

- 무생물주어 : 문항 4) 나는 큰 공을 가지고 있다.

I have a **big** ball. (정답률 : 97.30%)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big’이 유생성에 따른 사람과 관련된 문항과 무생물과 관련된 문항에서 정답률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big’이 사람과 관련된 문항의 오답률은 12.3% 인데, 이 중 51.85%가 오답으로 ‘tall’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이는 학생들이 ‘big(덩치가 큰)’과 ‘tall(키가 큰)’ 두 어휘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strong

- 사람주어 : 문항 3) 나의 선생님은 강하시다.

My teacher is **strong**. (정답률 : 84.00%)

- 무생물주어 : 문항 13) 이 약은 강하다.

This medicine is **strong**. (정답률 : 75.34%)

유생성에 관계없이 한국어와 영어에서 동일하게 부호화되는데도 불구하고 ‘strong’의 정답률이 가장 낮은 것은 학생들이 ‘strong’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4.2.2 유생성 상이부호화 문항

형용사 문항 중 본 연구의 목표인 유생성 상이부호화 문항들이 주어 유생성에 따른 한국어와 영어 간에 다른 방법으로 부호화되는 문항들에 관한 고찰을 하고자한다. <표 6>은 유생성 상이부호화 문항 중 형용사 문항의 정답률 순위를 나타내었다.

<표 6> 유생성 상이부호화 문항 중 형용사 문항의 정답률 순위

No	정답	무표문항	정답률(%)	No	정답	유표문항	정답률(%)
1	short (짧은)	문항26	90.37%	1	short (키가 작은)	문항21	88.13%
2	old (늙은)	문항25	87.21%	2	old (낡은)	문항32	79.36%
3	thirsty (목마른)	문항30	83.03%	3	heavy (무거운)	문항29	76.61%
4	tall (키가 큰)	문항28	80.73%	4	full (가득 찬)	문항27	74.31%
5	full (배가 부른)	문항17	80.37%	5	free (공짜의)	문항20	66.21%
6	heavy (몸무게가 무거운)	문항19	76.26%	6	thirsty (마른)	문항22	56.16%
7	busy (바쁜)	문항23	75.34%	7	busy (빡빡한)	문항18	39.27%
8	free (자유로운)	문항31	73.40%	8	tall (높은)	문항24	35.62%

형용사 무표문항 중 초등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했던 문항은 ‘free’로 생물 주어와 쓰여 ‘자유로운’의 의미로 사용되었을 경우이며, 유표문항 중에서는 ‘tall’이 ‘높은’의 뜻으로 사용되었을 때가 정답률이 35.6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이윤경 외(2009년)의 연구에서 중학생들도 ‘tall’이 ‘(건물 등이)높은’의 의미로 사용되었을 때 정답률이 가장 낮았다는 결과와 같다.

<표 6>을 보면 ‘heavy’의 경우는 오히려 유표문항이 무표문항보다 정답률이 높지만, 나머지는 유표문항의 정답률이 무표문항의 정답률보다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학생들이 무표문항에 비해 유표문항을 상대적으로 어려워했음을 보여준다. ‘heavy’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고, 나머지 어휘에 대해 무표문항과 유표문항간의 비교·분석을 해보겠다.

1) heavy

- 무표문항 : 문항 19) 그는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

He is heavy. (정답률 : 76.26%)

- 유표문항 : 문항 29) 저 탁자는 무겁다.

That table is heavy. (정답률 : 76.61%)

‘heavy’의 경우는 유표문항의 정답률의 평균점수가 무표문항의 정답률의 평균점수보다 더 높았지만, 두 문항 간 정답률 차이는 0.35%로 거의 나지 않았다. 이는 학생들이 ‘heavy’가 사람과 쓰였을 때의 의미와 사물과 쓰였을 때의 의미를 잘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tall

- 무표문항 : 문항 28) 나의 아버지는 키가 크시다.

My father is tall. (정답률 : 80.73%)

- 유표문항 : 문항 24) 매우 높은 건물이구나!

What a tall building ! (정답률 : 35.62%)

‘tall’의 경우, 무표문항과 유표문항의 정답률 차이는 45.11%로 형용사의 16문항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tall’의 ‘키가 큰’이라는 의미의 정답률은 80.73%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잘 알고 있지만, ‘(건물이)높은’의 의미로 쓰일 때에는 정답률이 35.62%였다. 초등학교 5학년 영어 교과서에 ‘what a tall building!’단원이 있고, 학생들은 ‘(건물이)높은’의 의미를 이미 학습하였다. 하지만 6학년 때, ‘tall’을 ‘키가 큰’이라는 의미로만 배운다. 따라서 학생들은 ‘tall’의 의미를 사람과 함께 쓰였을 때의 의미로 기억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으로는 ‘high’가 95명으로 가장 많았고, ‘long’이 22명이었다.

3) busy

- 무표문항 : 문항 23) 나의 어머니는 바쁘시다.

My mother is busy. (정답률 : 75.34%)

- 유표문항 : 문항 18) 그 시장은 붐빈다.

That market is busy. (정답률 : 39.27%)

‘busy’의 경우, 무표문항과 유표문항의 정답률의 차이는 36.07%로 크게 나타났다. 교과서에 ‘busy’는 주로 생물주어와 쓰여 ‘바쁜’의 의미로 표현되므로, 학생들은 ‘busy’가 무생물주어와 함께 쓰여 ‘붐비는’이라는 의미는 거의 접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busy’가 유표문항에서 ‘거리, 도로, 시장’등의 무생물주어와 함께 쓰여 ‘붐비는, 복잡한’으로 부호화되는 것을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4) thirsty

- 무표문항 : 문항 30) 나는 목마르다.

I’m thirsty. (정답률 : 83.03%)

- 유표문항 : 문항 22) 식물이 말랐다.

The plants are thirsty. (정답률 : 56.16%)

‘thirsty’의 경우 교과서에서 자주 접했던 ‘목마른’의 의미인 무표문항은 정답률이 83.03%로 높았으나, 유생성 부호화 차이로 인해 사람과 쓰이지 않

을 때 ‘(식물 등이)마른’의 의미인 유표문항의 정답률은 56.16%로 정답률에 큰 차이를 보였다. 학생들이 ‘thirsty’의 기본적인 뜻인 ‘목마른’은 잘 알고 있지만, 유생성에 따라 달리 표현된 ‘(식물 등이)마른’의 의미는 잘 알지 못했다.

5) old

- 무표문항 : 문항 25) 그는 매우 늙었다.

He is very old. (정답률 : 87.21%)

- 유표문항 : 문항 32) 나의 차는 낡았다.

My car is old. (정답률 : 79.62%)

‘old’는 학생들이 교과서에서 나이를 묻고 답할 때, ‘How old are you?’, ‘I’m 13 years old.’ 등에서 사람주어와 함께 쓰인 문장을 많이 접한다. 따라서 사람주어와 쓰여 ‘늙은’의 의미를 묻는 무표문항의 정답률이 무생물주어와 쓰여 ‘낡은’의 의미를 묻는 유표문항의 정답률보다 7.59%더 높았다.

6) free

- 무표문항 : 문항 29) 나는 지금 자유롭다.

I’m free now. (정답률 : 73.40%)

- 유표문항 : 문항 19) 그것은 공짜다.

It is free. (정답률 : 66.21%)

‘free’의 경우도 무표문항의 정답률의 평균점수가 유표문항의 정답률의 평균점수보다 7.19% 더 높았다. 학생들이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자유로

운'의 의미를 '공짜의'라는 의미보다 더 잘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7) full

- 무표문항 : 문항 17) 나는 배가 부르다.

I am full. (정답률 : 80.37%)

- 유표문항 : 문항 27) 잔에 물이 차있다.

The glass is full of water. (정답률 : 74.31%)

두 문항간의 정답률의 차이는 6.06%이었고,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배가 부른'이라는 의미의 정답률이 '가득 찬'이라는 의미의 정답률보다 더 높았다. 두 문항의 오답으로는 'heavy, high'가 많이 선택되었다.

8) short

- 무표문항 : 문항 26) 나의 연필은 짧다.

My pencil is short. (정답률 : 90.37%)

- 유표문항 : 문항 21) 그는 키가 작다.

He is short. (정답률 : 88.13%)

'short'의 경우는 주어의 유생성에 상관없이 무표문항, 유표문항 모두 정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두 문항 간의 정답률의 차이도 2.24%로 크지 않았다. 'short'는 '짧은'의 의미로 사용되었을 때가 '키가 작은'의 의미로 사용되었을 때보다 정답률이 높았다.

4.3 동사 관련 문항

동사 관련 문항 중 유생성 동일부호화 문항과 상이부호화 문항의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4.3.1 유생성 동일부호화 문항

동사 문항 중 주어의 유생성에 따라 한국어와 영어 간에 동일하게 부호화되는 문항들에 관한 결과를 고찰하고자 한다. 유생성 동일부호화 문항 중 동사 문항의 정답률 순위는 <표 7>에 나타내었다.



<표 7> 유생성 동일부호화 문항 중 동사 문항의 정답률 순위

No	정답	사람	정답률(%)	No	정답	무생물	정답률(%)
1	fly	문항46	91.32%	1	fly	문항34	94.06%
1	die	문항49	91.32%	2	die	문항57	91.78%
3	help	문항40	88.58%	3	make	문항35	89.95%
4	make	문항42	88.13%	4	help	문항48	81.74%
5	jump	문항38	86.76%	5	jump	문항47	74.89%
6	come	문항45	78.08%	6	come	문항39	74.43%
7	move	문항33	74.00%	7	move	문항41	71.23%
8	need	문항44	68.49%	8	need	문항37	68.49%
9	use	문항36	66.21%	9	use	문항43	65.75%

문항간의 정답률에서 ‘fly, die, help, come, move, need, use’는 큰 차이가 없었다. 이는 주어의 유생성이 초등학생들이 정답을 맞추는데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유생성 차이에 의해 사람주어와 관련된 문항과 무생물 주어와 관련된 문항에서 정답률의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문항은 ‘jump’로 11.87%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help’가 6.84%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어가 생물일 때 동사 ‘use’의 정답률은 66.21%로 가장 낮았으며, 무생물이 주어인 경우도 역시 동사 ‘use’의 정답률은 65.75%로 가장 낮은 결과를 보였다. ‘jump’, ‘help’와 ‘use’ 문항을 자세히 살펴보겠다.

1) jump

- 사람주어 : 문항 38) 아이가 침대위에서 뛰었다.

The child jumped on the bed. (정답률 : 86.76%)

- 무생물주어 : 문항 47) 물가가 많이 뛰었다.

The prices jumped up. (정답률 : 74.89%)

‘jump’의 경우, 사람주어와 무생물주어 간의 정답률 차이가 11.87%로 동사 관련 동일부호화 문항들 중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것은 학생들이 무생물주어와 함께 쓰인 ‘jump’를 많이 접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람주어와 쓰인 문항의 오답률의 41.38%, 무생물주어와 쓰인 문항의 오답률의 45.45%가 오답으로 ‘run’이 가장 많았다. 이는 학생들이 문장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뛰다’는 어휘만 보고 ‘run’을 선택한 것으로 추측된다.

2) help

- 사람주어 : 문항 40) 나는 네가 숙제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다.

I can help you with your homework. (정답률 : 88.58%)

- 무생물주어 : 문항 48) 그 약은 내 두통에 도움이 될 수 없다.

The medicine can't help my headache. (정답률 : 81.74%)

‘help’의 경우, 사람주어와 무생물주어 간의 정답률 차이가 동사 관련 동일부호화 문항들 중 두 번째로 크게 나타났지만, 정답률 차이가 6.84%로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동일 부호화문항들을 유생성에 상관없이 잘 알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use

- 사람주어 : 문항 36) 나는 빵을 자르는데 칼을 사용할 수 있다.

I can use a knife to cut bread. (정답률 : 66.21%)

- 무생물주어 : 문항 43) 그 자동차는 기름을 사용하여 움직인다.

The cars use oil to move. (정답률 : 65.75%)

‘use’는 유생성에 따른 사람주어와 무생물주어의 정답률의 차이는 0.46%로 거의 차이가 나지 않으나, 사람주어일 경우 정답률은 66.21%로 가장 낮았으며, 무생물주어일 경우의 정답률도 65.75%로 가장 낮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학생들이 ‘use’의 의미를 충분히 학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응답의 유형이 16개에서 18개로 다른 문항에 비해 아주 많은 것 또한 이 어휘에 대한 학습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4.3.2 유생성 상이부호화 문항

동사 문항 중 본 연구의 주안점인 유생성 상이부호화 문항들이 주어 유생성에 따른 한국어와 영어 간에 다른 방법으로 부호화 되는 문항들을 설명하고자 한다.

유생성 상이부호화 문항 중 동사 문항의 정답률 순위를 <표 8>에 나타내었다.

<표 8> 유생성 상이부호화 문항 중 동사 문항의 정답률 순위

No	정답	무표문항	정답률(%)	No	정답	유표문항	정답률(%)
1	run	문항59	89.40%	1	touch	문항50	70.18%
2	like	문항62	88.53%	2	take	문항55	49.08%
3	drink	문항53	86.70%	3	drink	문항61	40.40%
4	touch	문항63	77.98%	4	stand	문항58	25.23%
5	stand	문항51	76.15%	5	like	문항56	20.18%
6	wait	문항60	68.35%	6	wait	문항52	15.60%
7	take	문항64	57.34%	7	run	문항54	1.38%

동사의 무표문항 중 초등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했던 문항은 ‘take’로 무생물 주어로 쓰여 ‘가져가다’의 의미로 사용되었을 경우로, 57.34%의 정답률을 나타내었다. 유표문항 중에서는 ‘run’이 ‘흐르다’의 뜻으로 사용되었을 때의 정답률이 1.38%로 아주 낮게 나타났다. 또한 ‘wait’는 ‘미루다’의 뜻으로 사용되었을 때의 정답률이 15.60%로 ‘run’ 다음으로 낮은 결과를 보였다.

1) run

- 무표문항 : 문항 59) 나는 빨리 달릴 수 있다.

I can run fast. (정답률 : 89.40%)

- 유표문항 : 문항 54) 이 강들은 바다까지 이어져 있다.

These rivers run to the sea. (정답률 : 1.38%)

‘run’은 두 문항간의 정답률 차이가 88.02%로 동사의 유생성 상이부호화 문항 중 정답률 차이가 가장 컸다. 무표문항의 정답률이 89.40%로 무표문항 중 정답률이 가장 높았다. 반면에 유표문항의 정답률은 1.38%로 유표문항 중 정답률이 가장 낮았다. 이는 학생들은 ‘run’의 기본적인 의미인 ‘사람이나 동물이 움직이다.’는 뜻을 잘 알고 있으나, 주어가 무생물일 때의 의미는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like

- 무표문항 : 문항 62) 나는 과일을 좋아해요.

I like fruits. (정답률 : 88.53%)

- 유표문항 : 문항 56) 나는 사과를 좋아하지만, 그것은 나에게 맞지 않다.

I like apples, but they don't like me. (정답률 : 20.18%)

‘like’ 역시 두 문항간의 정답률 차이는 68.35%로 크게 나타났다. 김보영 (2008)의 연구에 의하면 ‘like’는 교과서에 122회 출현하여 본동사 중에서 상위 2위를 차지한다. 교과서에 나타난 ‘like’의 의미는 모두 무표문항의 의미인 ‘좋아하다’는 뜻이었고, 무표문항의 정답률이 높은 것으로 보아, 이 어휘에 대한 학습이 잘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유생성에 따른 부호화의 차이로 인해 유표문항의 정답률은 20.18%로 매우 낮았다.

3) wait

- 무표문항 : 문항 60) 나는 당신을 기다릴 수 있다.

I can wait for you. (정답률 : 68.35%)

- 유표문항 : 문항 52) 이 일은 내일까지 미루어도 된다.

This work can wait until tomorrow. (정답률 : 15.60%)

두 문항간의 정답률 차이는 52.75%로 크게 나타났다. 학생들은 ‘wait’의 기본의미인 ‘사람이 무엇을 기다리면서 어떤 장소에 있는 관계’는 잘 알고 있으나, 무생물이 주어일 경우 ‘무생물 주어가 어떤 상태에서 사람이나 사람의 주위가 닿을 때까지 있다’는 의미는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stand

- 무표문항 : 문항 51) 아이들이 내 책상 옆에 서있다.

Children stand beside my desk. (정답률 : 76.15%)

- 유표문항 : 문항 58) 그 집들은 언덕 위에 위치해 있다.

The houses stand on the hill. (정답률 : 25.23%)

두 문항간의 정답률 차이는 50.92%로 ‘drink’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무표문항의 정답률이 76.15%로 높은데 반해 유표문항의 정답률은 25.23%로 낮았다. 따라서 ‘drink’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유생성에 따라 ‘stand’의 의미의 차이를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 drink

- 무표문항 : 문항 53) 나는 물을 매일 마신다.

I drink water every day. (정답률 : 86.70%)

- 유표문항 : 문항 61) 식물은 물을 흡수한다.

Plants drink up water. (정답률 : 40.40%)

두 문항간의 정답률 차이는 46.30%로 ‘touch’와 ‘take’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무표문항의 정답률이 86.70%로 높은데 반해 유표문항의 정답률이 40.40%로 낮은 것으로 보아, 학생들이 유생성에 따라 ‘drink’의 의미의 차이를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6) take

- 무표문항 : 문항 64) 그녀는 책을 도서관에 가져갈 것이다.

She will take the book to the library. (정답률 : 57.34%)

- 유표문항 : 문항 55) 그녀는 딸을 산책하는데 데려갈 것이다.

She will take her daughter for a walk. (정답률 : 49.08%)

두 문항간의 정답률 차이는 8.26%로, 그 차이가 두 번째로 작게 나타났다. 무표문항 중 정답률이 가장 낮았던 어휘는 ‘take’로 이 어휘에 대한 학습이 부족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7) touch

- 무표문항 : 문항 63) 나는 그의 손을 만졌다.

I touched his hand. (정답률 : 77.98%)

- 유표문항 : 문항 50) 너의 치마가 페인트에 닿았다.

Your skirt touched the paint. (정답률 : 70.18%)

두 문항간의 정답률 차이는 7.80%로 가장 작게 나타났다. ‘touch’의 유표문항의 정답률은 70.1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정답률이 높았던 ‘take’의 유표문항과의 정답률의 차이가 21.10%로 크게 나타났다. 이는 이

윤경 외(2009)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V. 결 론

본 연구는 한국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유생성에 따른 영어 연어를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형용사와 동사의 통사적 계층의 다양한 문항들을 통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생성 동일부호화 문항의 평균 점수(100점 환산)는 84.56점, 유생성 상이부호화 문항의 평균 점수(100점 환산)는 62.43점으로 학생들이 유생성 상이부호화 문항을 유생성 동일부호화 문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렵게 느꼈다. 둘째, 유생성 상이부호화 문항 중 무표문항의 평균 점수(100점 환산)는 75.60점, 유표문항의 평균 점수(100점 환산)는 49.20점으로 학생들이 유표문항을 무표문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렵게 느꼈다. 이를 종합하면, 우리나라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은 같은 어휘라도 유생성에 따라 한국어로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에 적절한 영어 어휘를 선택하는 연어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유생성에 따라 우리나라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연어능력이 부족한 이유는 유생성 부호화에 있어서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어휘가 한 가지 뜻으로만 제시되어 유표문항과 같은 예문을 접할 기회가 부족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영어 연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유생성 부호화 차이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유표문항과 같은 문장을 접할 기회를 늘려야 한다. 그리고 어휘는 문법규칙과는 달리 점진적으로 배워서 반복학습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 또한 초등학교 영어 교과서에 단원별로 체계적인 연어 목록을 제시하고, 연어 지도에 대한 안내가 교사용 지도서에 제공되어야 한다. 교사가 연어 지도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도한다면 초등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겨진다.



참 고 문 헌

- 김보영. (2008). 「초등학교 영어 교과서에 나타난 동사 연어(collocation) 분석」. 석사학위논문, 부경대학교.
- 김성식. (2004). 「초등학교 영어 교육을 위한 어휘 중심 교수법 수업 모형과 어휘 자료 개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김소영. (2002). 「한영 지시 표현의 비교분석(유생성 부호화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부경대학교.
- 김은일. (1998). 영어 구사력 향상을 위한 한·영구조에 나타난 유생성차이에 관한 비교연구. 「부산영어교육」 9(1), 145-164.
- 김은일. (2000). 유생성의 문법. 「현대문법연구」 20(1), 71-96.
- 김은일. (2002). 기능문법과 영어교육. 「현대문법연구」 27, 105-121.
- 김은일, 박기성, 채영희. (역) (2002). 「기능영문법」 서울: 박이정.
- 김인석, 강진. (2007). 7차 교육과정 하에서의 초등학생들의 영어 어휘 성취도 측정 연구. 「초등영어교육」 3(3), 35-63.
- 이윤경, 전지현, 김은일. (2009). 유생성(animacy)이 중학생들의 영어 연어 능력(collocational competence)에 미치는 영향. 「현대문법연구」 55, 93-117.
- 이화자. (1996). 중·고등학생의 영어 어휘력 신장을 위한 효율적인 교수방법. 「영어교육」 51(2), 77-105.

- 진현정, 정동빈. (2007). 어휘당어리 지도가 수준별 5~6세 유아들의 유창성 발달에 미치는 효과. 「영어교육」 62(4), 539-562.
- 허진이. (2001). 「영어와 한국어에서의 유생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 현태덕. (2007). 연어 학습이 영어능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 「현대영어교육」 8(1), 191-209.
- Bahns, J. & A. Eldaw. (1993). Should we Teach EFL Students Collocations? *System* 21(1), 101-114.
- Comrie, B. 1989. *Language Universals and Linguistic Typology* (Second Edi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roft, W. 1990. *Typology and Universal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rowther, J., S. Dignen. & D. Lea. (Ed.). (2002). *Oxford Collocations Dictionary for Students of English*.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Dahl, O. & K. Fraurud. (1996). Animacy in Grammar and Discourse. *Pragmatics and Beyond New Series* 38, 47-64.
- Dodson, K. & M. Tomasello. (1998). Acquiring the Transitive Construction in English: the Role of Animacy and Pronouns. *Journal of Child Language* 25(3), 605-622.
- Firth, J. R. (1951). Modes of Meaning. *Essays and Studies* vol. 4, 118-149, London English Association.
- Firth, J. R. (1957). A Synopsis of Linguistic Theory 1930-1955. In Palmer, F. R. (ed.) *Studies in linguistic analysis*, 1-32, special volume, Oxford: Blackwell.

- Gelman, S. A. & M. A. Koenig. (2001). The Role of Animacy in Children's Understanding of 'move'. *Journal of Child Language* 28(3), 683-702.
- Givón, T. (1984). *Syntax: A Functional-typological Introduction, Vol. I & II*. Amsterdam: John Benjamins.
- Givón, T. (1993). *English Grammar: A Function Based Introduction*. Amsterdam: J. Benjamins.
- Hill, J. 2000, Revising Priorities: From Grammatical Failure To Collocational Success. In Lewis, M. (ed.) *Teaching Collocation: Further Developments in The Lexical Approach*, 47-69, London: Language Teaching.
- Lewis, M. (1993). *The lexical approach: The state of ELT and the way forward*. Hove, U.K.: Language Teaching Publications.
- Lewis, M. (1997). *Implementing the lexical approach: Putting theory into practice*. England: Language Teaching Publications.
- Lewis, M. (2000a). Language in the Lexical Approach. In Lewis, M.(ed.), *Teaching Collocation*, 127, London: Language Teaching Publications.
- McCarthy, M. & O'Dell, F. (2005). *English Collocation in Us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attinger, J. (1988). Some Current Trends in Vocabulary Teaching. In Carter and McCarthy 68.
- Oxford Collocations Dictionary for Students of English*. (2002).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Palmer, F. R. (1968). *A Linguistic Study of the English Verb*. London:

Longman.

Palmer, H. E. (1933). *Second Interim Report on English Collocation*.

Tokyo: Kaitakusha.

Schlesinger, I. M. 1995. *Cognitive Space and Linguistic Case: Semantic and Syntactic Categories in Englis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Yamamoto, M. (1999). *Animacy and Reference*. Amsterdam: Benjamins.



< 부록 : 실험용 문제지 >

_____ 초등학교 _____ 학년 _____ 반 _____ 번 이름 _____

◎ 다음의 우리말에 가장 적합한 영어 단어를 아래 보기에서 하나 선택하여 문장을 완성하세요.

(단, 같은 답이 여러 문제에 사용될 수 있고, 사용되지 않는 단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 1~32 >

_____ < 보기 > _____

beautiful, big, busy, cold, cool, cute, free, full,
good, heavy, high, hungry, late, long, new, old,
short, strong, tall, thirsty, warm, young

1. 나는 춥다.

I am _____.

2. 그것은 좋은 생각이다.

It's a _____ idea.

3. 나의 선생님은 강하시다.

My teacher is _____.

4. 나는 큰 공을 가지고 있다.

I have a _____ ball.

5. 나의 어머니는 따뜻하시다.

My mother is _____.

6. 나의 인형은 귀엽다.

My doll is _____.

7. 그녀는 매우 아름답다.

She is very _____.

8. 버스가 늦었다.

The bus was _____.

9. 그는 (덩치가) 큰 사람이다.

He is a _____ man.

10. 그 방은 따뜻하다.

That room is _____.

11. 겨울은 춥다.

Winter is _____.

12. 그녀의 아기는 매우 귀엽다.

Her baby is very _____.

13. 이 약은 강하다.

This medicine is _____.

14. 그는 좋은 선생님이시다.

He is a _____ teacher.

15. 나는 늦었다.

I am _____.

16. 이 꽃은 매우 아름답다.

This flower is so _____.

17. 나는 배가 부르다.

I am _____.

18. 그 시장은 붐빈다.

That market is _____.

19. 그는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

He is _____.

20. 그것은 공짜다.

It is _____.

21. 그는 키가 작다.

He is _____.

22. 식물이 말랐다.

The plants are _____.

23. 나의 어머니는 바쁘시다.

My mother is _____.

24. 매우 높은 건물이구나!

What a _____ building !

25. 그는 매우 늙었다.

He is very _____.

26. 나의 연필은 짧다.

My pencil is _____.

27. 잔에 물이 차있다.

The glass is _____ of water.

28. 나의 아버지는 키가 크시다.

My father is _____.

29. 저 탁자는 무겁다.

That table is _____.

30. 나는 목마르다.

I'm _____.

31. 나는 지금 자유롭다.

I'm _____ now.

32. 나의 차는 날았다.

My car is _____.

◎ 다음의 우리말에 가장 적합한 영어 단어를 아래 보기에서 하나 선택하여 문장을 완성하세요.

(단, 같은 답이 여러 문제에 사용될 수 있고, 사용되지 않는 단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 33~64 >

< 보기 >

close, come, drink, drive, enjoy, feel, fly, get, go,
help, jump, let, like, look, make, meet, miss, move, need,
pass, put, run, see, stand, take, touch, turn, use, wait

33. 우리는 빨리 움직여야만 한다.

We must _____ quickly.

34. 비행기들은 하늘을 난다.

The planes _____ the sky.

35. 별들은 빛을 만든다.

Stars _____ light.

36. 나는 빵을 자르는데 칼을 사용할 수 있다.

I can _____ a knife to cut bread.

37. 식물은 산소가 필요하다.

Plants _____ oxygen.

38. 아이가 침대위에서 뛰었다.

The child _____ ed on the bed.

39. 겨울이 곧 올 것이다.

Winter will _____ soon.

40. 나는 네가 숙제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다.

I can _____ you with your homework.

41.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The train began to _____.

42. 나는 케이크를 만들 수 있다.

I can _____ a cake.

43. 그 자동차는 기름을 사용하여 움직인다.

The cars _____ oil to move.

44. 나는 종이 한 장이 필요하다.

I _____ a paper.

45. 나는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다.

I want to _____ back to Korea.

46. 새 중에는 날지 못하는 새도 있다.

Some birds can't _____.

47. 물가가 많이 뛰었다.

The prices _____ up.

48. 그 약은 내 두통에 도움이 될 수 없다.

The medicine can't _____ my headache.

49. 군인들은 나라를 위해 죽을 수 있다.

Soldiers can _____ for their country.

50. 너의 치마가 페인트에 닿았다.

Your skirt _____ the paint.

51. 아이들이 내 책상 옆에 서있다.

Children _____ beside my desk.

52. 이 일은 내일까지 미루어도 된다.

This work can _____ until tomorrow.

53. 나는 물을 매일 마신다.

I _____ water every day.

54. 이 강들은 바다까지 이어져 있다.

These rivers _____ to the sea.

55. 그녀는 딸을 산책하는데 데려갈 것이다.

She will _____ her daughter for a walk.

56. 나는 사과를 좋아하지만 그것은 나에게 맞지 않다.
I like apples, but they don't _____ me.

57. 꽃들은 겨울에 죽는다.
Flowers _____ in winter.

58. 그 집들은 언덕위에 위치해있다.
The houses _____ on the hill.

59. 나는 빨리 달릴 수 있다.
I can _____ fast.

60. 나는 당신을 기다릴 수 있다.
I can _____ for you.

61. 식물을 물을 흡수한다.
Plants _____ up water.

62. 나는 과일을 좋아해요.
I _____ fruits.

63. 나는 그의 손을 만졌다.
I _____ his hand.

64. 그녀는 책을 도서관에 가져갈 것이다.
She will _____ the book to the library.

*** 수고하셨습니다. ***